

강화고려역사재단 <고려 왕릉·고분> 학술회의

고려 왕릉·고분 문화와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 주최 : 강화고려역사재단 >> 후원 : 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년 11월 7일(금) 오후 2시~6시 인하대학교 본관 소강당

강화고려역사재단에서는 “고려 왕릉·고분 문화와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고려시대 왕후장상들은 죽어서도 도읍 근처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왕릉·고분들은 주로 500년 도읍지 개성 주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공민왕 부부의 현·정릉을 포함한 일부 왕릉과 고분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대몽항쟁기 도읍지 강화에도 희종과 고종, 원종비와 강종비의 능을 비롯한 왕후장상들의 무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개성과 강화에 남아 있는 고려 왕릉·고분과 관련한 제반 문화와 유적의 학술적 검토를 통해 고려 왕릉·고분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강화역사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함께 하시어 강화의 고려 왕릉·고분 유적 연구와 보존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 대표이사 박종기

일정

[개회사] 박종기 (강화고려역사재단 대표이사, 국민대학교 교수)

[기조강연] 고려시대의 문화적 특색 | 채웅석 (가톨릭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사회 : 홍영의 (국민대학교 교수)

- 발표1. 개성 고려 왕릉의 현황과 성격 | 이상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소장)
- 발표2. 강화 고려 능묘의 현황과 특징 | 이희인 (인천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 발표3. 고려시대 장례 절차에서의 변화상과 강도(江都) 시기 장례
-관인(官人)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 박진훈 (명지대학교 교수)
- 발표4. 고려분묘(高麗墳墓) 매납도자(埋納陶磁)의 종류와 특징 | 이종민 (충북대학교 교수)
- 발표5. 조선 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과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 이창환 (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좌장 : 강옥엽 (인천지역사자료관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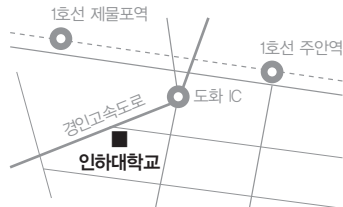
- 약정토론 발표1 : 장경희 (한서대학교 교수), 발표2 : 한나래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발표3 : 김인호 (광운대학교 교수), 발표4 :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표5 : 정해득 (한신대학교 교수)
- 지정토론 김기덕 (건국대학교 교수), 박성우 (인하대학교박물관 선임연구원), 이형우 (인천대학교 교수)
임학성 (인하대학교 교수),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

[폐회사] 박종기 (강화고려역사재단 대표이사, 국민대학교 교수)



강화고려역사재단
Ganghwa & Goryeo History Foundation

032-930-5700 / www.ghistory.or.kr



인하대학교_인천광역시 남구 인화로 100